

르/포/



대전 DCC대전컨벤션센터서 올해 첫 번째 반려동물용품 박람회 '2025 대전펫페어'가 열렸다.

(사진=김해인 기자)

# “내 새끼 자랑도 하고 쇼핑도 하고...” 대전 펫페어 현장 ‘복직복직’

### DCC대전컨벤션센터서 ‘케이펫페어 대전’... 폭설 뚫고 인파 몰려

“동기(반려견 이름)와 새로운 추억도 만들고 요즘 트렌드는 어떤지 경험해보고 싶어서 왔어요.”

창밖으로 하얀꽃잎처럼 보이던 눈이 매서운 강풍과 함께 폭설로 도로 위를 점령한 지난 7일 오전 10시, 이러한 곳엔 날씨에도 불구하고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 위치한 DCC대전컨벤션센터는 반려가족들로 북적였다.

이날부터 9일까지 한국펫사료협회(KPFA)가 주최하고 ㈜메세이상이 주관한 '2025 케이펫페어 대전'이 열리기 때문이다.

입구에서부터 이미 관람할 준비를 들뜬 모습의 반려인들과 펫 패션쇼를 연상케 하듯 한껏 꾸미고 나온 반려견들의 모습이 행사의 열기를 더했다.

개모차(개와 유모차의 합성어)를 끌고 반려견과 행사장을 방문한 강 모 씨는 “추운데다 많은 눈까지 내려 운전하기 무서워 율까말까 망설였지만 오늘이 아니면 체험하기 어려울 것 같아 방문했다”라며 “사진으로 잘 담아두고자 강아지 옷도 제일 예쁜 거 입고 유모차도 제일 좋은 걸로 끌고 왔다”고 들뜬 마음을 드러냈다.

다양한 홍보 및 체험부스는 반려인과 방문객에게 눈길을 끌었다. 반려인들은 이구동성으로 현장 판매해서 그런지 인터넷 판매 제품보다 많

게는 50% 가량, 보통은 20~30% 싸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행사에선 펫푸드, 펫리빙, 펫아웃도어, 펫웨어, 펫케어, 펫플레이, 펫서비스 등 170여개 펫관련 업체와 250여개 브랜드가 참여해 신제품을 소개하고 자체 프로모션으로 다양한 혜택을 제공했다.

더불어 반려동물과 직접 체험해볼 수 있는 반려동물 체험클래스도 진행됐다. 특히 펫자수 브로치는 나의 반려견과의 소중한 추억을 간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을 받았다.

이 밖에도 펫 아로마 클래스와 댕냥이 모루인형 만들기, 댕냥이 레진 스마트톡 만들기, 댕냥이 직조과자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행사도 열렸다. 유모차와 의류 등 필수품 외에도 구강용품과 청소용품, 카시트 등이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애견식품에 대한 관심도 높아졌다. 소중한 반려견의 영양과 안전성을 우선시했고 원물 본연의 맛은 물론 반려견이 피해야하는 알러지 성분도 꼼꼼히 파악할 수 있게 매우 세분화됐다.

이번 행사는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에 보탬이 되는 물론 이벤트 등을 통해 색다른 추억을 만들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는 점에

서 의미를 더해주고 있다.

행사장서 만난 김유경씨(여·27)는 “애견축제가 열린다고해서 처음으로 부모님과 함께 행사장을 찾게 됐다”며 “행사장에서 예쁘고 귀여운 강아지들을 보고 당장 반려견을 키우기로 마음 먹었다”고 말했다.

세종에서 왔다는 박수현씨(여·55)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펫 축제를 찾았다”면서 “해를 거듭할수록 축제 규모가 커지고 반려동물과 추억이 될 만한 행사도 있어 좋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을 키우는 국민이 1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반려인들이 늘고 있다”며 “반려동물을 바라보는 일반인들의 인식도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행사 전반적으로 호평을 받은 펫페어였지만, 일부 아쉬운 부분을 지적하는 반려인들의 목소리도 나왔다.

중형견 강아지와 함께 행사장을 방문한 20대 여성 김 모씨는 “옷을 사려고 왔는데, 소형견 사이즈 아니면 대형견 사이즈뿐이라 맞는 사이즈가 없었다”라며 아쉬워했다.

이어 “부스들이 카테고리별로 분류돼 있지 않아서 둘러보기 어려웠다. 간식이면 간식, 옷이면 옷 코너로 모아서 부스를 분류했다면 더 좋을 것”이라고 토로했다.

행사 주최 측은 첫날과 이튿날인 지난 7·8일 1만여 명이 방문했다고 밝혔다.

김미영·김해인 기자 dailycc@dailyc.com

## ‘토지보상금 17억 횡령’ 전 천안시청 청원경찰 중형 확정

17억 원 상당의 토지보상금을 가로채 파면된 전 천안시청 청원경찰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A(41)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천안시 건설도로과에서 보상금 지급 업무를 담당하며 서류를 조작해 총 17억원 상당을 가로챘던 혐의다.

특히 23회에 걸쳐 주민들에게 토지보상금 17억원을 과대하게 지급한 뒤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이 중 15억원을 해외 도박 등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심 재판부는 “보상금 지급 업무의 공정성을 훼손해 17억원 상당의 손실이 발생했고 범죄 수익금 대부분 도박

으로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고 항소심 재판부 역시 “공무원으로서 허위 공문서를 작성하고 위조하는 등 계획적으로 거액의 보상금을 가로채 죄질이 나쁘다”며 “공무원 청렴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을 유지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 선고된 징역 7년과 벌금 4000만원 등을 유지했다.

A씨는 대법원 판결을 받기 위해 상고를 제기했다.

한편 천안시는 지난해 8월 징계위원회를 열고 A씨를 파면 처분하고 징계 부가금 1억4000만원을 의결했으며 시에 변제할 것도 요구했다.

장선화 기자 adzerg@naver.com

## 세종수목원 희귀특산온실에 제주백서향 ‘활짝’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은 전 세계에서 제주도 지역에서만 자생하고 있는 제주백서향(Daphne jejuensis M. Kim)이 개화했다고 9일 밝혔다.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전시온실에서 만날 수 있는 제주백서향은 주로 제주도 중산간 꽃자왈 지역에서 서식하고 있는 특산식물이다. 팔꽃나무과 팔꽃나무속에 속하는 늘푸른 작은 키 식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주백서향은 매화나 산수유보다 먼저 봄을 알리는 꽃으로 ‘상서로운 향의 흰 꽃’이라는 이름처럼 향이 좋고 멀리 간다고 해 ‘천리향’이라고도 불리고 있다.

국립세종수목원 희귀특산전시온실



제주백서향. (사진=국립세종수목원 제공)

은 2개동으로 야외월동이 되지 않는 희귀·특산식물과 난초과 식물 200여종을 보존하고 있으며 사시사철 푸르른 상록수종을 만날 수 있다.

정원원 기자 wanyoung@dailyc.com

## 충주 규모 3.1 지진... 유감신고 23건, 피해 접수 없어

### 기상청 당초 4.2로 발표했다가 조정

2월 한파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충북 충주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은 지난 7일 오전 2시 35분께 충주시 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진앙(震央)은 북위 37.14도, 동경 127.76도로 행정구역상 충주시 양성면이며, 진원(震源)의 깊이는 9km로 추정됐다. 기상청은 지진파 중 속도가 빠른 P파를 자동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지진

의 규모를 당초 4.2로 발표했다가 추가 분석을 거쳐 3.1로 하향 조정했다.

이날 오전 5시 기준 소방청에 접수된 유감(有感) 신고는 강원 13건, 충북 8건, 경기 2건 등 총 23건이고,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안전부는 충주에서 지진이 발생하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비상 1단계를 가동하고 지진 위기경보 ‘경계’ 단계를 발령한 바 있다. 최일 기자 choil@dailyc.com

**임야 매매**

- 위치: 충남 당진시 송악읍 반촌리 산76-1
- 금액: 55억원
- 크기: 30,149㎡

금강산공인중개사사무소  
041-356-0808

충청신문으로  
가치있는 미래에 한 발 더

신문 읽기는 미래를 위한 가장 가치있는 일입니다.

**마음수침 한의원**  
Korean Medicine Clinic

주소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로 134 아베스빌딩  
전화번호 042-486-0222